

# 학습계획표

이 교재는 24일 동안 공부할 수 있게 계획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공부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상보다 느리게 진도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32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공부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일차	14일차	15일차	16일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일차	18일차	19일차	20일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일차	22일차	23일차	24일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일차	26일차	27일차	28일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9일차	30일차	31일차	32일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R** eading &  
**T** hinking

## 수능 독서론

모든 언어 학습, 특히 국어 공부는 읽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기는 어휘력과 문법 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다양한 문체와 표현을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 독서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독서론이 수능 국어 지문에 추가된 이유를 생각해 보니, 이견 꽤나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의 오랜 다툼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러한 변화는 필요한 조치였을 거야. 사교육이 때로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는 근거가 없는 것들도 많다는 게 문제야. 반면, 공교육에서는 학습 전문가들이 더 많은 공부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학습을 설계해. 그래서 독서론의 도입은 수능 국어 공부를 좀 더 실질적이고 근거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같아.

독서론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판적 사고, 분석적 사고, 그리고 깊은 이해와 같은 능력을 기를 수 있어. 이런 점에서 독서론의 추가는 국어 과목을 단순히 문법이나 문학 지식을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 같아.

나는 수능을 출제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들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교육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니까. 독서론의 추가는 바로 이런 전문성과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 결국,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더 넓은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

### 1. 비판적 사고력의 중요성:

수능 국어의 독서론은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과정이야. 이런 능력은 너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해.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보면 어떨까?

### 2. 통합적 사고 능력:

독서론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연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문학, 역사, 사회, 과학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식을 통합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건, 너희가 미래에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는 데 필수적이야.

### 3. 자기 주도적 학습: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 독서론은 너희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 4. 표현 능력 강화:

독서론을 통해 읽기, 이해하기,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은 학교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과 미래의 직업에서도 매우 중요해.

### 5. 장기적인 관점:

당장의 시험 점수를 넘어서서, 이 모든 학습 과정은 너희가 더 넓은 세상과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지금 배우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너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

# 01. 2024학년도 수능

## 원래 글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 행위이다.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초인지가 중요하다. 독서에서의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초인지는 글을 읽기 시작한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과정에 동원된다. 독자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독서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진행하는데,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며 점검한다. 효과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중 독서의 진행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 보는 방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독서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이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독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예가 그것이다. 문제 발생 여부의 점검을 위해서는 독서 진행 중간중간에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초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도 동원된다. 독서 목표를 고려하여, 독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 조건 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또한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전략들의 적절한 적용 순서가 무엇인지,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다. 선택한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초인지를 활용하여 점검과 조정을 되풀이하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간다.

## 나에게 설명하는 글

내가 책을 읽을 때, 그냥 글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지. 책을 잘 읽으려면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 이걸 '초인지'라고 해. 내가 책을 읽는 방법을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금 바꿔보는 거야.

예를 들어, 책을 읽기 시작하면 나는 계속 생각을 하며 읽어. '이 방법으로 읽는 게 맞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말이야. 만약 내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면,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지 고민해.



가끔은 내가 읽는 동안 문제가 생겼는데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럴 땐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잠깐 멈추고 정리해보곤 해.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읽은 걸 얼마나 이해했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이야.

초인지는 책 읽는 전략을 바꿀 때도 도움이 돼. 내가 세운 목표에 맞게 읽고 있는지, 다른 방법을 써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말이야. 어떤 전략이 좋을지, 그 전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거지.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 내가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고, 필요하면 방법을 바꿔. 이렇게 나는 책을 읽으며 능동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야.

**평가되는 태도**

**자기 인식의 중요성:**

내가 책을 읽는 방식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해. 나는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 방법이 내가 이해하려는 내용에 적합한지 스스로 물어봐야 돼.

**지속적인 자가 점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채택한 독서 방법이 효과적인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해. 만약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해.

**문제 인식 및 해결:**

읽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해. 이는 독서의 흐름을 방해하는 생각을 분류하고 해결하는 것을 포함해.

**자기 이해도 평가:**

내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스스로 평가해야 해. 이 과정에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독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

**독서 전략의 조정:**

내가 세운 독서 목표에 맞게 읽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다른 독서 전략을 고려해야 해. 각 전략의 특징과 사용 절차를 이해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능동적인 의미 구성:**

책을 읽는 과정에서 단순히 글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해. 이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포함해.

**내가 정리할 것**

## 02. 2024학년도 10모

### 원래 글

주제 통합적 독서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화제와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글을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독서이다. 이때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하는 독자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글을 비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독서 목적에 따라 선정한 글의 내용을 통합하여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지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주제 통합적 독서는 독서 목적에 따라 진행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대개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먼저 독자는 독서 목적에 따라 탐구하려는 주제를 정한다. 그리고 책의 제목이나 서평 등을 참조하여 주제와 관련 있는 책들을 찾아 읽기 목록을 만든다. 그다음에는 수집한 책을 빠르게 훑어보며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읽을지 파악하는데 만약 읽을 글이 주제와 관련이 없으면 아예 읽기 목록에서 빼거나 다른 글로 교체할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 탐구하려는 주제를 구체화한다. 선별한 부분을 읽을 때는 꼼꼼히 읽되 읽은 내용을 자기 말로 이해해야 한다. 자기 말로 이해한다는 것은 글에 나오는 핵심 개념을 탐구 주제와 연관 지어 해석한다는 것이다. 읽기가 끝나면 독자는 글의 내용과 형식 글쓴이의 관점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탐구할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구성한다. 자신의 관점은 읽은 글에 나오는 특정 관점을 비판하거나 지지하여 구성할 수도 있고 읽은 글의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이미 읽은 글은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쓰이는데 이를 위해 읽은 글의 한 부분을 인용할 수도 있다.

주제 통합적 독서를 하면 다양한 관점을 비교해 봄으로써 비판력을 기를 수 있고 여러 글쓴이의 집필 의도나 관점을 파악해 가는 과정에서 추론력도 기를 수 있다. 또 여러 글을 편견 없이 읽어야 하므로 주제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주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생성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생활 환경이 다양해졌고 이로 인해 복합적 성격의 사회 문제가 증가했다. 이런 성격의 사회 문제는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인문학 자연 과학 공학 예술 등의 지식을 통합해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주제 통합적 독서는 이런 점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역량을 기르는 독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 나에게 설명하는 글

나는 얼마 전, '주제 통합적 독서'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이건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같은 주제에 대해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야. 처음엔 좀 복잡해 보였는데, 생각해보니 꽤 흥미로운 방식이더라고.

이 방식은 먼저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 그다음엔 그 주제와 관련 있는 책들을 찾아서 읽기 목록을 만들어. 책을 고를 때는 제목이나 서평을 참고해. 그리고는 책들을 대충 훑어보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을지 결정해. 만약 내가 고른 책이 주제와 맞지 않으면 다른 책으로 바꾸기도 해.



이렇게 책들을 읽으면서 중요한 건, 내가 읽은 내용을 내 말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거야. 내가 이해한 대로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주제에 대한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내는 거지. 또, 다양한 글들을 비교하면서 내 생각을 더 깊게 발전시킬 수 있어. 읽은 글들은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글에서 중요한 부분을 인용하기도 해.

이렇게 주제 통합적으로 독서를 하면, 여러 관점을 비교해보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읽으면서 그들의 의도나 관점을 이해하는 추론력도 키울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독서하면, 주제에 대해 균형 잡힌 이해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할 수 있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하고, 많은 사회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 분야의 지식을 결합해야 해. 주제 통합적 독서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나도 이 방법을 활용해 더 깊이 있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평리되는 태도**

목적 의식을 갖고 독서하기:

먼저 내가 어떤 목적으로 독서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해.  
이 목적이 내가 읽을 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거든.

관련된 책들을 꼼꼼히 고르기: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찾을 때는 책의 제목, 서평 등을  
참고해야 해.

이렇게 해서 주제에 맞는 좋은 책들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해.

선택한 책을 효율적으로 읽기:

책을 읽을 때는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좋아.

책 전체를 꼼꼼히 읽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

내용을 자신의 말로 이해하고 재구성하기:

읽은 내용을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내 말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하면 내가 읽은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다양한 관점 비교하기: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각각의 관점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해.

이를 통해 내가 가진 생각을 더 넓히고 발전시킬 수 있지.

자신의 관점 형성하기: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내 관점을 만들어내야 해.

이 관점은 읽은 글에 나온 관점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일 수도 있어.

비판적 사고와 추론력 기르기:

여러 글을 읽고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이해하는  
추론력을 길러야 해.

균형 잡힌 이해 도모하기:

주제에 대해 편견 없이 다양한 관점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해.

**내가 평리할 것**

**R** eading &  
**T** hinking

## 수능에서 시작

읽기는 사고력과 이해력을 개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학습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장르의 읽기 자료를 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01. 언어와 사고의 관계

## (1994학년도 수능 2차, 58~60)

### 원래 글

(가)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연구한 사피어(E.Sapir)에 의하면,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살고 있으며, 언어가 노출시키고 분절(分節)시켜 놓은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한다. 워프(B. Whorf) 역시 사피어와 같은 관점에서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양식을 결정하고 구조(鑄造)한다고 말한다. 사피어와 워프의 말에 비추어 우리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리말에서는 초록, 청색, 남색을 '푸르다'고 한다. '푸른 숲', '푸른 바다', '푸른 하늘' 등의 표현이 그러한 경우로, 우리는 이 다른 색들에 대한 한 가지 말을 쓰고 있다. 사피어와 워프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는 숲, 바다, 하늘을 한 가지 색깔로 생각하게 된다.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는 것이다.

(나) 어떤 색깔에 해당되는 어휘가 없다고 해서 그 색깔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해당 어휘가 있으면 인식하기가 쉽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겠지만 어휘가 없다고 해서 인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분명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되 그 생각을 표현할 적당한 말을 갖고 있지 못할 뿐이거나 말을 잊어서 표현에 곤란을 느낄 뿐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문법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의 명사나 형용사에는 남성을 나타내는지 여성을 나타내는지를 변별해서 사용하도록 해주는 문법적 장치가 있다. 이에 비해 우리말은 그러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 이성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들을 볼 때,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 나에게 설명하는 글

내가 생각해보니,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 E. Sapir와 B. Whorf라는 두 학자의 이론이 참 흥미로워.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언어라는 창을 통해 보고 경험한다고 말했어. 나는 이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우리는 초록, 청색, 남색 같은 다양한 색들을 모두 '푸르다'라고 표현하잖아? '푸른 숲', '푸른 바다', '푸른 하늘' 같은 말들이 그 예시야. 이런 말들을 사용하다 보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비슷한 색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정말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결정짓는지 보여주는 예시 같아.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색깔을 표현할 말이 없다고 해서 그 색깔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단어가 없어도 그 색깔을 볼 수는 있고, 어찌면 단어가 있으면 그 색을 더 쉽게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겠지만 말이야. 나는 이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걸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걸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사고가 언어에 완전히 제약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언어와 문법의 예를 들어보자. 프랑스어에서는 명사나 형용사가 남성이나 여성을 구분하도록 문법적 장치가 있어. 그런데 우리말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남성과 여성을 구별할 수 있어. 이걸 보면, 언어가 우리의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 언어가 우리의 사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도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나는 이런 미스터리가 참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 평리되는 태도

글을 잘 읽기 위해서, 나는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해. 언어와 사고에 관한 E. Sapir와 B. Whorf의 이론을 생각하며, 글에 담긴 작가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느껴. 언어를 통해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의 방식을 인식하면서, 나는 글이라는 매체가 어떻게 다양한 생각과 감정, 지식을 전달하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비판적 사고: 글을 읽을 때, 나는 작가의 주장이나 생각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려고 해. '푸르다'라는 말로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는 우리말의 예처럼, 언어가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지를 생각하며, 글의 내용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의미를 분석하려고 노력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어떤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해. 언어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나는 한 가지 관점만이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글을 해석하려고 해. 이는 글이라는 매체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색깔과 같다고 생각해.

깊이 있는 이해와 사색: 글을 읽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소비가 아니라, 나에게 깊이 있는 사색과 이해의 과정이야. 글 속에 담긴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생각하며, 나는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 이 과정에서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야.

언어의 힘 인식: 언어가 우리의 사고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면서, 나는 글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힘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어. 언어의 선택과 사용이 어떻게 의미를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글을 깊이 있게 읽는 데 있어 중요한 태도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 글을 읽는 것이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나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확장시키는 여정이 되도록 하는 태도야.

## 내가 평리할 것

## 02. 연극의 구성요소

### (1994학년도 수능 2차, 46~48)

#### 원래 글

흔히 연극의 구성 요소로서 희곡 배우 무대 관객을 지칭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연극은 극작가 배우 연출가 관객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예술이다. 관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은 모든 예술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연극은 언제나 배우와 관객의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대면을 통해서만 성립된다는 점에서 그 독자성을 지닌다. 따라서 연극의 관객은 단순한 구경꾼이나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는 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극사를 보면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던 시대에 걸작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또한 같은 작품을 공연하는 경우에도 관객의 호응도가 높을 때 보다 훌륭한 공연이 이루어졌음을 잘 알 수 있다. 연극의 존재 이유에 핵심적인 요인을 부여하는 것은 직접 창조 행위에 관여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관객 쪽이며 이들 사이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원만한 호응 관계가 성립될 때 비로소 연극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관객이 작품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때 그 공연은 연극인들만의 자기만족 행위로 끝나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물론 관객만이 연극을 생산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관객의 내적인 영향력은 연극을 위해서는 없어서 안 될 구성 요소이고 나아가 그것은 연극을 꽃피우는 대지인 것이다. 만드는 편에서 생각하면 극작가의 고심에 가득 찬 창작에서부터 연극 창조가 시작될 테지만 향수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일부러 먼 극장을 찾아가서 기꺼이 입장권을 사는 데서부터 관극 행위가 출발된다. 능동적이건 수동적이건 관객이란 일단 관극 행위를 선택한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그렇지만 방송극을 듣거나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경우와는 달리 연극에서는 관객의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가 보다 더 확고하게 작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능동성이나 참여 의식이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객은 연극을 보면서 공동체 의식과 집단 심리를 형성하게 된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직접 반응하면서 서로 간에 무언의 의사소통을 나누게 되며 그와 함께 관객은 배우와 자신과의 동일화와 거리두기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연극의 독자성은 이러한 관객의 반응이 역으로 배우들에게 다시 전달되어 그들의 연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어떠한 관객이 관극하느냐에 따라 연극의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양질의 관객을 획득하는 일은 연극 창조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 나에게 설명하는 글

내가 생각해보니, 연극이라는 것이 정말 특별한 예술이란 걸 알게 됐다. 평소에 우리가 보는 연극에는 작가, 배우, 연출가, 그리고 관객이라는 네 가지 큰 요소가 있다는 걸 배웠다. 특히 관객이 없으면 연극은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게 했다. 생각해보면, 모든 예술이 관객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연극은 배우와 관객이 직접 마주치면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현장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관객이 단순히 보는 사람을 넘어서 연극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관객들이 열심히 참여하던 시절에 명작들이 많이 탄생했다고 하더라. 관객의 반응이 좋을 때 연극도 더 멋지게 완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젠 마치, 관객과 배우 사이에 좋은 소통이 있을 때 연극이 진짜 생명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관객이 연극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내면에서 오는 반응이 연극을 빛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껴져. 관객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배우와 작품이라도 그저 자기만족에 그칠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관객은 연극의 토양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생각을 좀 더 해보니, 관객이 되는 건 꽤나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 극장에 가서 표를 사고, 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보는 모든 과정이, 말하자면 하나의 '참여'라는 걸 알게 됐다. 라디오 드라마나 영화, TV 드라마를 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결정과 참여가 연극에서는 요구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관객들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배우들과의 깊은 감정적 교류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

이 모든 것을 통해 느낀 건, 연극이라는 예술은 정말 독특하고, 관객과 배우, 작가, 연출가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완성되는 '공동 창조의 과정'이라는 거야. 어떤 관객이 오느냐에 따라 연극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관객을 모으는 일이 연극을 만드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나도 언젠가는 그런 '좋은 관객'이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 평리되는 태도

글을 잘 읽기 위해서, 연극을 보는 관객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어. 이것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것처럼 말해볼게.

첫째,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해. 마치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글을 읽을 때도 나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해.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글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나는 이 글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야. 이건 글을 읽는 행위에 나를 완전히 몰입시키고, 더 깊은 이해와 즐거움을 찾는 데 도움이 돼.

둘째,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태도가 필요해. 연극 관객이 공연을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글을 읽을 때도 저자와의 소통, 글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나의 생각을 연결짓는 과정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어. 글을 읽는 것을 저자와의 대화, 또는 넓게는 읽는 모든 이들과의 무언의 대화로 보면, 글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셋째, 배우와 관객 사이의 동일화와 거리두기를 글 읽기에 적용해 보는 거야. 배우의 연기에 몰입하면서도 자신을 관객으로서의 위치에서 물러나 관찰하는 것처럼, 글을 읽을 때도 내용에 깊이 몰입하면서도 동시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해. 이런 태도는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동시에 글의 주장이나 가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

마지막으로,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해. 연극에서 관객이 작품과 배우들에게 영향을 미치듯, 글을 읽을 때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해. 이는 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내용을 요약하고, 중요한 점을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이 과정에서 글의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글쓰기 능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지.

이렇게 글을 읽을 때 관객이 연극을 즐기는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적용해보면, 글을 더 잘 이해하고 즐길 수 있을 거야. 나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글을 읽어보니, 정말 글 속 세계가 더 풍부하고 다채로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

## 내가 평리할 것

### 03. 학문의 목적

## (2014학년도 수능 2차, 14~16)

#### 원래 글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학문이 실생활에 유용하고, 그 자체의 추구가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은 모두가 학문이 다름 아닌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용적이니까, 또는 재미가 나는 것이니까 진리요 학문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 유용한 것이요, 재미도 나는 것이다. 유용하다든지 재미가 난다는 것은 학문에 있어서 부차적으로 따라올 것이요, 그것이 곧 궁극적인 목적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문의 목적은 진리 탐구 그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진리의 탐구는 해서 무엇하나 할지 모르나, 학문의 목적은 그로써 족한 것이다. 진리 탐구로서의 학문의 목적이 현실 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우원함을 탓함직도 하다. 그러나 오히려 학문은 현실 생활로부터 유리된 것처럼 보일 때, 가끔 그의 가장 풍부한 축복을 현실 생활 위에 내리는 수가 많다. 세상에서는 흔히 학문밖에 모르는 상아탑 속의 연구 생활을 현실을 도피한 것이라고 비난하기가 일쑤지만, 상아탑의 덕택이 큰 것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점에서 편리해진 생활을 향락하고 있는 현대인이 있기 전에 그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그런 향락과는 담을 쌓고 진리 탐구에 몰두한 학자들의 상아탑 속에서의 노고가 앞서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남의 향락을 위하여 스스로는 고난의 길을 일부러 걷는 것이 학자는 아니다. 학자는 그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학문을 하는 것뿐이다. 상아탑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해야 할 상아탑이 제 구실을 옹게 다 하지 못하는 것이 탈이다. 학문에 진리 탐구 이외의 다른 목적이 선불리 앞장을 설 때, 그 학문은 자유를 잃고 왜곡될 염려조차 있다. 학문을 악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진리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그 학문은 한때의 신기루와도 같아 우선은 찬연함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과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부터가 문제다. 진리의 탐구가 학문의 유일한 목적일 때, 그리고 그 길로 매진할 때, 그 무엇에도 속박됨이 없는 숭고한 학적인 정신이 만남을 극복하는 기백을 길러 줄 것이요, 또 그것대로 우리의 인격 완성의 길로 통하게도 되는 것이다. 학문의 본질은 합리성과 실증성에 있고, 학문의 목적은 진리 탐구에 있다. 위무로써 굽힐 수도 없고, 영달로써 달랠 수도 없는 학문의 학문으로서의 권위도 이러한 본질, 이러한 목적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나에게 설명하는 글

내가 왜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걸까? 자주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떤 이들은 학문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묻곤 하지. 하지만 나에게 학문은 그런 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 바로 '진리를 탐구하는 것'. 이게 학문의 진짜 목적인다고 생각해.

실용적이라는 이유나, 재미있어서라는 이유로 학문을 하는 게 아니야.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지.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더 풍요로워지고, 때론 재미를 발견하는 거야. 유용하다는 것, 재미있다는 것은 학문의 부가적인 결과일 뿐이지, 학문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봐.

자, 그럼 왜 진리를 탐구하는 걸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아. 학문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그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어.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일 때일수록 학문은 우리의 삶에 큰 가치를 더해주곤 해.

사람들은 종종 현실 도피라고 비판하지만, 이른바 '상아탑'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우리 현대 생활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라는 걸 알아야 해.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학문에 몰두하는 게 아니야. 진리를 탐구하는 순수한 목적으로 학문을 하는 거지. 상아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을 잃어버린 상황이 문제야.

학문이 진리를 추구하는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자유를 잃고 왜곡될 위험이 있어. 진리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학문일 수 있을지 의문이야. 하지만 진리 탐구를 학문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그 길을 꾸준히 걸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인격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

학문의 본질은 바로 합리성과 실증성에 있어. 그리고 그 목적은 언제나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지.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는 학문의 권위는 바로 이런 본질과 목적에서 비롯되는 거야.

**평리되는 태도**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글이 전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해. 나는 이것을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가짐'이라고 부르고 싶어. 그렇다면, 글을 잘 읽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글을 읽을 때, 그 내용에 대해 진정으로 알고 싶은 마음, 즉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왜냐하면 호기심은 우리를 글의 깊은 내용으로 이끌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만드니까.

비판적 사고: 글을 읽으면서 나오는 주장이나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며 의문을 가질 줄 알아야 해. 이는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견해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인내심을 가지기: 때로는 글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어.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심이야.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글의 의미를 천천히 풀어가려는 인내심이 필요해.

상황에 맞게 읽기: 글을 읽는 방식은 그 글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해. 예를 들어, 소설을 읽을 때와 학술 논문을 읽을 때의 접근 방식은 다를 거야. 각각의 글이 요구하는 바에 맞춰 읽는 태도가 필요해.

적극적으로 의문을 갖기: 글을 읽으면서 생기는 궁금증이나 의문을 그냥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해.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사나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하기: 글을 읽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글에 반영해 보는 것도 중요해. 이렇게 함으로써 글을 더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글을 잘 읽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따라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지식을 넓히며, 자기 자신과도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글을 읽어 나간다면, 글 속에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내가 평리할 것**

## 04. 과학과 철학의 비교

### (1996학년도 수능, 56~60)

#### 원래 글

키케로가 이미 갈파했듯이, 철학자의 책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리석음뿐이다. 확실히 철학자들은 상식을 거부하고 온갖 지혜를 추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철학적 비상은 희박한 공기의 상승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은 항상 진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철학은 언제나 근거를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은 철학이 과학적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질서와 자유, 삶과 죽음 등과 같은 어렵고 위험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탐구 분야든지 정확한 공식화가 가능한 지식을 산출하면 곧 과학이라고 일컫는다. 과학은 철학에서 시작하여 기술로 끝나고, 또한 과학은 가설의 샘에서 발원하여 성취의 바다로 흘러간다. 철학은 미지의 것 또는 부정확한 것에 대한 가설적 해석이다. 철학이 진리 세계를 탐구하는 최전선이고 과학이 점령 지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식과 기술로 건설된 후방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은 어쩔 줄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철학은 승리의 열매를 과학에게 넘겨주고 나서, 거룩한 불만을 간직한 채 아직도 탐구되지 않은 불확실한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기로 하자. 과학은 분석적 기술이고 철학은 종합적 해석이다. 과학은 전체를 부분으로, 모호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분해하려고 한다. 과학은 사물의 가치나 이상적 가능성을 탐구하지 않으며, 사물의 전체적인 궁극적 의미를 묻지 않는다. 과학은 사물의 현상과 작용을 밝히는 데 만족하고, 현존하는 사물의 성질과 과정에만 시야를 국한한다. 과학자는 천재의 창조적 진통뿐만 아니라 벼룩의 다리에도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철학자는 사실의 기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철학자는 사실과 경험의 관계를 확정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려고 한다. 철학자는 사물을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호기심 많은 과학자가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를 분해해 놓으면, 철학자는 그 시계를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조립하려고 애쓴다. 과정을 관찰하고 수단을 고안해 내는 지식이 과학이라면, 여러 가지 목적을 비판하고 조절하는 지혜가 철학이다. 사실이 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철학이 없는 과학, 지혜가 없는 지식은 우리들을 절망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한다. 과학은 인간에게 지식을 주지만, 철학은 인간에게 지혜를 제공한다.

#### 나에게 설명하는 글

내가 생각해 보니, 키케로가 말했던 것처럼, 철학자들의 책에서 나는 종종 어리석음만을 발견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 철학자들이 상식을 무시하고, 지혜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종종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들의 생각은 마치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얇은 공기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철학은 늘 근거를 잃어버린 것 같아 보여.

하지만, 나는 또 생각해. 철학이 과학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선과 악이나 아름다움과 추함 같은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 어떤 지식이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다면, 그것을 바로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과학은 철학에서 시작해서 기술로 끝나고, 가설에서 시작해 성취로 흘러가. 반면에 철학은 미지의 것이나 부정확한 것에 대한 가설적 해석이야. 이렇게 보면, 철학이 탐험의 최전선이고, 과학이 그 뒤를 따르는 점령 지대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의 삶은 이 둘에 의해 지어진 안전한 뒷마당인 셈이야.

그래, 철학이 가끔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그런데도 철학은 승리의 열매를 과학에게 넘겨주고, 아직 탐구되지 않은 지역으로 나아가며 거룩한 불만을 품고 있어. 나는 이걸 더 전문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 과학은 분석적인 기술이고, 철학은 종합적인 해석이야. 과학자들은 사물을 분해해 가치나 이상적 가능성을 찾지 않고, 단지 현상과 작용을 밝히는 데에 집중해. 반면, 철학자들은 사실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해. 그들은 사물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내가 볼 때, 과학자가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를 분해한다면, 철학자는 그것을 다시 더 잘 조립하려고 애쓰는 거야. 과학은 관찰하고 고안하는 지식이라면, 철학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을 비판하고 조절하는 지혜야. 사실 자체는 목적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과학이 지식을 주는 것처럼, 철학은 우리에게 지혜를 줘. 철학 없는 과학, 지혜 없는 지식은 우리를 절망에서 구해내지 못해. 나는 이제 과학이 인간에게 지식을, 철학이 지혜를 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

## 평리하는 태도

내가 방금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걸 바탕으로, 글을 잘 읽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정리해 볼게. 철학과 과학 사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 이걸 글을 읽는 방법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첫째,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해. 글을 읽을 때, 나처럼 과학자가 우주의 시계를 분해하듯이,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하며 접근해야 해. 이런 호기심은 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거야.

둘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해. 철학자가 시계를 다시 조립하려 애쓰는 것처럼, 글의 정보를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내 생각과 연결지어 보는 것이 중요해. 이런 과정을 통해 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셋째,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해. 철학이 다양한 목적을 비판하고 조절하는 지혜를 제공하는 것처럼, 글을 읽을 때도 작가의 주장이나 아이디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해. 이는 너의 사고를 더욱 성숙시킬 거야.

넷째,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해. 철학과 과학 모두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글을 읽을 때도 새로운 아이디어나 다른 관점에 열려 있어야 해. 이는 너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탐구를 해야 해. 철학이 아직 탐구되지 않은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글을 읽을 때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도전하며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어. 이런 태도는 너를 더 깊은 이해와 통찰로 이끌 거야.

이렇게, 글을 잘 읽기 위한 태도는 호기심, 상상력, 비판적 사고, 열린 마음, 그리고 인내심을 포함해.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나처럼 글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더 넓은 지식과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거야.

## 내가 평리할 것

# 05. 우리말을 가꾸는 길

## (2017학년도 수능, 56~60)

### 원래 글

일찍이 주시경 선생은 말과 글을 정리하는 일은 집 안을 청소하는 일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집 안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신마저 혼몽해지는 일이 있듯이 우리말을 갈고 닦지 않으며 국민정신이 해이해지고 나라의 힘이 약해진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통치하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선학들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혼신의 정열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얼마 전 어느 국어학자가 정년을 맞이하면서 자신과 제자들의 글을 모아서 엮어 낸 수상집의 차례를 보고 우리말을 가꾸는 길이란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일이 있다. 차례를 '첫째 마당, 둘째 마당'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여 꾸며뒀던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평평하게 닦아 놓은 넓은 땅'을 뜻하는 '마당'에다 책의 내용을 가른다는 새로운 뜻을 준 것이다. 새로운 낱말을 만들 때에는 몇몇 선학들이 시도했듯이 '매가름, 목'처럼 일상어와 인연을 맺기가 어려운 것을 쓰거나, '엮, 묶'과 같이 낱말의 한 부분을 따오는 방식보다는 역시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새로운 개념을 불어넣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언어 대중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고장에서는 시멘트를 '돌가루'라고 불렀다. 이런 말들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훌륭한 우리 고유어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도 실리지 않고 그냥 폐어가 되어 버렸다. 지금은 고향에 가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얼마 전, 고속 도로의 옆길을 가리키는 말을 종전대로 써오던 용어인 '노견'에서 '갓길'로 바꾸었다는 보도를 듣고, 우리의 언어생활도 이제 바른 방향을 잡아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우리말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우리말을 살려 쓰는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지만, 한자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자어를 무조건 외래어로 보아 이를 배척하는 것이 국어를 갈고 다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그런 일은 우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한자어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우리말의 어휘 체계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외래어로 보기가 어렵게 된 말들이 많다. 이를 하루아침에 사용하지 말자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어휘의 양은 갑자기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우리말에서 고유어와 한자어는 각각 독특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상황에 따라 한자어보다 고유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이해가 쉬운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흔히 보는 "차례차례 승차합시다"는 "차례차례 탑시다"로 바꾸어 적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고 음절이 줄어드니 그만큼 경제적이다. 이처럼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써 한자어와 고유어가 공존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유어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이를테면 '조류'와 '날짐승'의 경우, 그 뜻이 같다고 한다면 후자를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류'를 완전히 버릴 수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럴 수만은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는 '이 - 치아'의 경우처럼 한자어가 존재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이 있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한자어들을 무조건 사용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다. 만약, 나이 드신 분께 "어르신 이는 아직 튼튼하시지요?"처럼 말을 한다면,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고유어가 일상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전문 영역에서 사용될 때에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데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한자어들을 무조건 버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일상생활에서는 순우리말인 '값, 글, 옷, 생각'만을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 그렇지만 이들에는 저마다 독특한 용법을 지니는 한자어들이 대응하고 있어, 한자어들은 고유어보다 의미가 더 구체적이면서 분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한자어들을 단지 한자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척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떤 사람이 입을 글인가에 따라 어휘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 대중들이 모두 보아야 하는 글에서는 쉬운 우리말을 써도 가능할 것이고,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 글에서는 한자어라고 하더라도 바르게 구사할 줄 아는 것이 우리말을 풍부하게 가꾸는 길일 것이다.

### 나에게 설명하는 글

말이에요, 일찍이 주시경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말과 글을 가꾸는 일이 마치 우리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도 어수선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말과 글을 소중히 다루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정신도 흐트러지고 나라의 기운도 약해질 수 있다고 봤어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선조들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한 국어학자가 정년을 맞이해 자신과 제자들의 글을 모아 낸 책의 목차를 보고 크게 감동받았어요. 그 책의 목차는 '첫째 마당, 둘째 마당'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을 이용해 꾸며뒀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일상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말을 가꾸는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고장에서만 쓰던 '돌가루' 같은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말인데 사전에도 실리지 않고

잊혀져버렸어요. 이제는 고향에 가도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없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고속도로 옆길을 가리키던 '노견'이라는 말이 '갓길'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말이 점점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말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일,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한자어 문제도 그렇고요. 한자어를 완전히 배척하기보다는, 우리말과 어우러져 오랫동안 쓰여 온 말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하철에서 "차례차례 승차합니다" 대신 "차례차례 탑시다"라고 바꾸면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지, 그리고 경제적인지를 생각해봐야 해요. 우리 고유어와 한자어가 각각의 독특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조류'와 '날짐승' 중에는 '날짐승'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조류'라는 말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말에는 한자어가 존재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어르신에게 "어르신 이는 아직 튼튼하시지요?"라고 말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전문 영역에서는 한자어를 사용해야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순우리말만 사용해도 괜찮지만, 전문 영역에서는 한자어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필요할 때는 한자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우리말을 풍부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평리되는 태도**

글을 잘 읽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방식에 대해 말하고 싶어. 우선, 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해. 주시경 선생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열고 글의 내용을 집 안을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정돈하려는 자세가 필요해. 이런 태도가 우리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기: 글을 읽을 때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해. 우리의 생각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작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려고 해야 해.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단순히 글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읽어야 해. 예를 들어, 작가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주제와 메시지 이해하기: 글을 읽으며 그 주제와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글의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

자신의 생각과 연결하기: 읽고 있는 글을 자신의 경험, 지식, 감정과 연결시켜 보는 것도 중요해. 이렇게 함으로써 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거야.

비판적 사고 발휘하기: 모든 글이나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도 필요해. 작가의 주장이나 정보가 객관적이고 타당한지,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점이 다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기록하고 정리하기: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이나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습관도 글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나중에 이 기록들을 다시 보면서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

다양한 글 읽기: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해.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우리의 사고를 넓힐 수 있어.

이런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작가와의 대화를 나누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탐색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평리할 것**

## 06. 명분에 대하여

### (1997학년도 수능, 24~29)

#### 원래 글

한국인의 전통적 명분관은 기본적으로 신분 질서나 상하의식에 따라 각각의 분수를 지키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는 계층적 명분론의 성격을 지니며, 동시에 개인이나 사회가 당면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판단이나 행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덕적 명분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계층적 명분관은 사회 내에 엄격한 계층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안정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였다. 가령,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고부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나타나는 계층적 성격에 따라 각자에게 명분을 부여함으로써 가족적인 질서를 지탱해 주었던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명분관에 따라 부모의 도리나 자식의 도리 또는 임금의 도리나 신하의 도리 등, 각자 지켜야 할 도리가 명분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 명분은 위아래의 어느 쪽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규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경우 명분이 계층적이라 하여, 이것이 윗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억압적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억압적인 현상은 힘 있는 강자가 명분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크게 보아 전통 사회에서는 오히려 위아래의 구성원이 각각 그 역할에 따라 명분의 제약을 받음으로써 공동체의 질서와 결속을 확보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통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른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명분을 앞세워 억제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또한 명분론은 기존의 안정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진보적 요구를 억누르는 보수적 성격도 띠고 있었다. 이 같은 계층적 명분관은 근대로 내려오면서 신분 제도가 동요하고 붕괴함에 따라 점차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면서, 도전과 모험의 진취적 태도를 부정하는 의식의 흔적이 도처에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도덕적 명분관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는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정의감이나 용기를 뒷받침한다. 즉, 불의에 대한 비판 의식이라든가 타협을 거부하는 선비의 강직한 정신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우리 사회를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이끌어 오는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또한 사회적 행위에 적용되는 도덕적 명분은 공동체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이 지나친 나머지, 경직된 비판 의식을 발휘하게 되면 사회적 긴장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컨대 조선 후기의 당쟁은 경직된 명분론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심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도덕적 명분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명분의 형식화와 체면치레가 성행하게 되면서 실용적인 측면이 소홀히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성리학적 의리에 집착한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가 만연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실용적 관점에서 의리론적 명분론의 허구성을 비판한 견해를 당시 실학자들의 저술 가운데서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다.

#### 나에게 설명하는 글

내가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갖고 있던 명분에 대한 생각은 참으로 복잡한 것 같아. 그건 마치,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같은 건데, 이게 다 사회적인 위치나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정해주는 규칙이었어. 예를 들어서, 가족 안에서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 사이에서 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금님과 신하 사이에서는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지 같은 것들 말이야.

이런 명분이라는 게, 사실은 서로를 억누르거나 제한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 예를 들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고, 그걸 따르려고 노력해. 그리고 이런 명분이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게 만드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명분이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막는 경우도 있었어. 말하자면, 너무나 고정된 규칙이나 질서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어렵게 만든 거지. 그리고 이런 명분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사회가 나뉘는 경우도 생겼어.

그런데 도덕적인 명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 도덕적인 명분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정의나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 이런 도덕적인 명분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도덕적 명분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져서, 사람들이 서로를 너무 엄격하게 비판하게 되거나, 사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명분에 대해서는 항상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명분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

## 평리되는 태도

글을 잘 읽으려면, 우선 그 글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해. 나는 늘 글을 읽을 때,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나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려고 해. 이 과정에서 글의 주제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 글에 담긴 감정이나 생각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도 글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그리고 글을 읽을 때는 마음을 열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 때로는 작가의 생각이나 감정이 나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글 속에 담긴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나의 사고 방식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어.

또한, 글을 읽을 때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 것도 중요해. 이런 태도는 글을 더 깊이 파고들게 하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 내가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부분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읽어.

마지막으로, 글을 읽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작가와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그 글을 읽으며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돼.

결국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은, 작가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그 글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호기심과 열린 마음, 그리고 깊은 사고를 통해 가능해져.

## 내가 평리할 것

## 07. 정보화

### (1998학년도 수능, 50~55)

#### 원래 글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정보 사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서 우리의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생산 체계, 일을 조직하는 방법, 소비의 유형 등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산업의 위상도 바뀌고 있다. 또한 여가 및 취미 생활, 사회적 인간관계 등 사람들의 생활 양식뿐 아니라 사고방식, 가치관마저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18세기 산업 혁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뀌리라는 생각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변화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변화의 방향이나 성격이 각각 다르게 예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기술 결정론과 사회 구조론으로 구별된다. 기술 결정론적 관점에서는 정보 기술이 발전되면 정보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부문이 급격하게 떠오르게 되고, 그에 따라 고용 구조라든가 정부나 기업이 조직되고 작동하는 방식에까지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사회 구조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즉, 정보 통신 기술은 변동의 기본 동인으로서 사회 변동에 자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기술 결정론을 탈산업 사회론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관점에 선 학자들은, 정보 사회라는 탈산업 사회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제'보다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라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고 보면서, 정보 지식을 탈산업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들은 '의회 민주주의보다는 참여 민주주의, 시민운동에 의한 사회 변동, 물질주의적 가치의 퇴조' 등이 미래 정보 사회의 주요 특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사회 구조론적 관점에서는 정보 기술을 독립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화가 진전되는 일도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일 따름이라고 본다. 정보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인정하더라도, 그 발전이 독립 변수가 아니라 일종의 매개 변수라고 보는 것이다. 요컨대,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일 수도 있지만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누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기술을 이용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 구조론자들은, 정보 사회란 부가 가치가 높은 정보 기술을 생산과 관리에 도입함으로써 자본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축적하고, 정보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상품화함으로써 이윤의

원천을 다양화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본다. 정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한편에서는 제조업을 포함한 기존 산업을 정보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 자체를 산업화하는 양면 전략, 즉 '산업을 정보화'와 '정보의 상품화'를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바라보는 정보 사회는 미래의 탈산업 사회론자들의 예측과는 달리 장밋빛 신세계가 아니다. 즉, 향후의 정보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보 불평등이 확대되고, 실업이 늘어나게 되며, 직무의 탈숙련화로 말미암아 노동자의 힘이 약화되고, 대규모의 다국적 조직을 통하여 정부가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는 등의 부정적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본다.

#### 나에게 설명하는 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정말, 요즘 정보가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어. 이런 변화는 마치 18세기 산업 혁명처럼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게 무슨 말이나면, 세상은 이미 정보화 사회로 크게 바뀌었고, 이제 우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방법, 심지어 우리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어. 이런 변화는 단지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정보 기술의 발달이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기술 발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런 다른 시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술 결정론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구조론적 관점이야.

기술 결정론적 관점에서 보면, 정보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면을 바꾸는 큰 원동력이 되어, 새로운 경제 분야를 만들어 내고, 일하는 방식이나 정부, 기업의 조직 방식까지도 바꿔 버릴 거라고 생각해.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정보 사회를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보면서, 정보를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고 있어. 그리고 미래에는 참여 민주주의나 시민 운동 같은 것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봐.

반면에, 사회 구조론적 관점에서는 정보 기술의 발달이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 없다고 해.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정보화가 결국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해. 그들에게 기술 발전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더 중요해. 그래서 이들은 정보 사회를 통해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축적하고, 정보 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 이윤을 창출하는 사회로 보는 거야.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본 미래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 경제적 불평등이나 정보 격차가 커지고, 실업이 늘어나며, 노동자의 권력이 약화될 거라고 보는 거야. 즉, 정보화 사회가 가져올 변화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직면해야 할 도전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들어. 아마도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거겠지.

**평리되는 태도**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태도가 필요해. 막 읽은 그 글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읽을 때 특히 더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글을 잘 읽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몇 가지 정리해보자.

호기심 가지기: 무엇보다 글을 읽을 때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이 글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자세가 생겨.

열린 마음 유지하기: 다양한 관점과 생각에 열려 있어야 해. 특히나 정보화 사회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기존의 생각이나 선입견에 갇히지 않고,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중요해.

주제와 핵심 메시지 찾기: 글을 읽을 때는 그 글의 주제와 핵심 메시지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해.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지.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모든 글을 읽을 때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도 중요해. 작가가 어떤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합리적인지 스스로 판단해보는 거야. 이 과정에서 글의 논리적 구성이나 주장의 신빙성을 평가해 볼 수 있어.

관련 지식 확장하기: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나 개념이

나오면, 그것을 찾아보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이렇게 하면, 글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내가 가진 지식의 폭도 넓혀갈 수 있어.

감정적으로 연결하기: 글을 읽을 때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분위기에도 주의를 기울여. 글 속에 담긴 감정이나 분위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정리하고 반성하기: 마지막으로, 글을 읽고 난 후에는 읽은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해 보고, 그 내용이 나의 생각이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이 과정을 통해 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읽기를 통해 얻은 지식이나 교훈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볼 수 있어.

이렇게 글을 읽을 때 필요한 태도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단순히 글자를 따라가는 것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와 학습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정리할 것**

# 09. 인간 언어의 특질

## (2000학년도 수능, 19~24)

### 원래 글

- (가) 인간만이 말을 한다는 주장을 인간 중심의 사고로 보는 견해가 있다. 벌이 춤으로 꿀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정확히 알려 주듯이, 인간 이외에도 의사소통 수단을 가진 동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물의 의사소통 수단과 인간 언어의 차이를 알기 위해 인간 언어의 특질 몇 가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 (나) 우선, 언어 표현과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 사이의 결합이 자의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언어마다 달리 발음하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확인된다. 간혹 의성어의 경우는 이 관계가 필연적이라는 이의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필연성은 없다. 예를 들어 국어로는 개가 짖는 소리를 '멍멍'이라고 하지만 러시아어로는 '가브가브'라고 한다. 이는 우리가 지각한 소리에 대한 언어 표현이 꼭 그래야 할 필연성이 없음을 보여 준다. 게다가 실제 소리와 언어 표현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소의 울음을 국어에서는 '음매'라고 발음하지만, 소는 그 소리대로 울지 않는다. '음매'라는 발음으로 우는 소가 있다면 그 소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소라고 하겠다.
- (다) 의미에 대한 언어 표현이 언어 사회마다 다른 것은 이들을 연결시키는 약속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연결이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의 예를 통해 살펴하기로 한다.
-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연필을 달라고 하셨다. 연필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공책을 집으셨다. 그리고는 앞으로 이 수업 시간에는 공책을 '연필'로, 연필은 '공책'으로 부르자고 하셨다. 선생님께서 다시 '연필'을 달라고 하셨다. 나는 얼른 공책을 드렸다.
- 의사소통이 되지 않다가 새로운 약속을 하나까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는 언어의 내용과 표현이 약속에 의해 결합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일단 사회에 수용된 약속은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라) 벌들도 서로의 약속이 없다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벌의 춤은 한정된 정보만 전달한다. 반면 인간은 한정된 수의 음소 및 단어와 그것들을 결합시키는 규칙을 토대로 새로운 단어와 문장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유한한 요소로 들여보지도 못한 새로운 표현을 창조해 내는 것이 인간이다. 이러한 특성을 창조성이라고 한다.
- (마) 인간의 언어는 지금 여기에 없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특질도 가지고 있다. 어제의 일이나 다른 곳의 일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국어의 경우 과거의 사건은 어미 '-었-'으로, 다른 곳의 사건은 '저기에서'와 같은 부사어로 실현시킨다. 이처럼 현재 여기에 없는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전위(傳位)라고 한다.

- (바) 이상에서 인간 언어의 특질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의사소통은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위에 든 특질들은 인간과 동물의 의사소통 수단을 구별해 주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 나에게 설명하는 글

요즘 우리 주변에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하지만 이걸 들을 때마다,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 벌이 춤을 추면서 어디에 꿀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처럼, 사실 다른 동물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사람의 말이 동물들의 소통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졌어.

먼저, 사람들이 쓰는 말은 정말 다양해. 같은 물건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말이 언어마다 다르게 발음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예를 들어, 우리는 개가 짖는 소리를 '멍멍'이라고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가브가브'라고 한다고 해. 이걸 말이나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 같아. 심지어 소가 우는 소리도 언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니까 말이야.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속이 있기 때문이야. 한번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연필을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연필 대신 공책을 건네줬더니, 선생님은 그때부터 수업 시간에는 공책을 '연필'로, 연필을 '공책'으로 부르자고 했어. 그 뒤로는 선생님이 '연필'을 달라고 하면, 나는 공책을 건네주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부를지에 대한 약속이 언어 소통을 가능하게 해.

하지만, 이런 약속은 사회적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 벌들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약속 없이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벌의 소통 방식은 아주 한정된 정보만 전달할 수 있어. 사람은 다르지. 우리는 몇 가지 소리와 규칙을 이용해서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말이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능력을 창조성이라고 하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어제 있었던 일이나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을 말할 수 있잖아. 이렇게 현재와 다른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언어를 통해 가능해.

이 모든 걸 생각해보면, 사람의 말과 동물들의 소통 방식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어.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이 사람의 언어를 동물들의 소통 방식과 구별해 주는 거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을 거야.

**평리하는 태도**

**내가 평리할 것**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태도가 필요해. 내가 방금 읽은 글에서 배운 것처럼, 글을 읽을 때 깊이 생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잘 읽기 위한 태도를 몇 가지 정리해봤어.

첫째,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해. 어떤 글이든지, 그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그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주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사람과 동물의 소통 방식에 대해 읽을 때,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이 차이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는 태도가 필요해.

둘째,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글을 읽을 때 모든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작가가 제시하는 주장이나 사실이 정말 타당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 이 과정에서 자신의 기존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평가하게 되고, 더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어.

셋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 읽고 있는 글의 내용이 나의 경험, 이미 알고 있는 지식, 혹은 다른 글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 체계에 통합시킬 수 있어서, 기억에 더 오래 남고 이해도가 높아지지.

넷째, 꾸준히 요약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나 나에게 새로운 정보는 무엇인지 메모하는 것처럼, 읽은 내용을 자신의 말로 다시 정리해 보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 글의 핵심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나중에도 그 내용을 쉽게 회상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거야. 때로는 익숙하지 않거나, 나의 기존 생각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글을 만날 수 있어. 이럴 때, 반발감을 가지기보다는 그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는 거야. 이런 태도가 진정으로 다양한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

이렇게 글을 읽을 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글 속에 담긴 메시지를 더 잘

# 10. 상호주의

## (2001학년도 수능, 37~41)

### 원래 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란 “행위자 갑이 을에게 베푼 바와 같이 을도 갑에게 똑같이 행하라.”라는 행위 준칙을 의미한다. 상호주의의 원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일견 피해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가혹하고 엄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만약 상대방의 밥그릇을 빼앗았다면 자신의 밥그릇도 미련 없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탈리오 법칙은 온건하고도 합리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밥그릇을 발로 찼을 경우 보복의 대상은 밥그릇으로 제한되어야지 밥상 전체를 뒤엎는 것으로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대일 방식의 상호주의를 ‘대칭적’ 상호주의라 부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대칭적 상호주의는 우리의 실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흔하지 않다. 오히려 ‘되로 주고 말고 받거나,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교환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이를 대칭적 상호주의와 대비하여 ‘비대칭적’ 상호주의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셈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인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의거한 호혜적(互惠的) 교환 관계가 가장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시장이다. 어떠한 행위자도 공짜로 재화를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내용은 결코 등량(等量)·등가(等價)의 것들이 아니다. 행위자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쌀을 원하고 을은 갑이 갖고 있는 설탕을 바랄 경우, 갑은 쌀에 대하여 그리고 을은 설탕에 대해 각각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은 각자의 선호와 자원의 범위 내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장군 명군 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회적 영역이다.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요구된다. 교환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자발성(自發性)과 교환 과정의 공정성(公正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 자발성은 행위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정성은 그들 간의 절차적 합리주의를 뜻한다. 예를 들어 강매나 사기, 도둑질 같은 행위는 선택의

자발성을 제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反)시장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들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통제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는 자발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견지하는 윤리적 규범이나 사회적 규칙을 행위자들이 신뢰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시장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비(非)시장적 요소’라 말할 수 있다.

### 나에게 설명하는 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는 항상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가르치셨어. 그 말이 내가 처음으로 '상호주의'란 개념을 알게 된 순간이었지. 상호주의란 간단히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야. 마치 옛날 이야기에서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말이야.

나는 어릴 적부터 이런 생각이 조금 가혹하다고 느꼈어.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친구의 점심 도시락을 실수로 떨어뜨렸다면, 나도 내 도시락을 그 친구에게 줘야 하는 건가?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이 원칙에는 또 다른 면이 있어. 만약 누군가 내 점심 도시락을 찼다면, 내가 그 사람의 점심상을 모두 엮어버리는 건 옳지 않아. 이걸 '대칭적 상호주의'라고 해서, 행동에 대한 반응이 공평해야 한다는 생각이지.

하지만 진짜 세상에서는 이런 대칭적인 상황이 잘 일어나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비대칭적 상호주의'에 더 익숙해. 이걸 마치 내가 친구에게 공책을 빌려줬는데, 친구는 나에게 연필을 빌려주는 것 같은 상황이야. 이렇게 되면 교환하는 것들이 정확히 같지 않아도 돼. 우리가 각자 다른 것을 선호하고, 각자 가진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적인 교환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

이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장이야. 시장에서는 아무도 공짜로 물건을 받을 수 없어. 예를 들어, 내가 설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친구는 쌀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치자. 내가 친구에게 설탕을 조금 주고, 대신 쌀을 받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둘 다 공평하게 교환하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시장에서 모든 게 잘 돌아가려면,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해.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교환에 참여해야 하고, 공정하게 교환해야 한다는 거지. 만약 누군가 강매하거나 속이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정말 시장 규칙에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시장에는 공정함과 자발성을 지키는 윤리적인 규칙이 필요해. 이런 규칙이 없으면, 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결국, 상호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도우며 살아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디어야. 그리고 이 생각이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시장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됐어. 나는 이제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를 실천하려고 해.

**정리되는 태도**

글을 잘 읽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정리하며, 나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준비하는 탐험가처럼 느껴진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개방성이다.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고,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와 작가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진정한 호기심이 필요하다. 이는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같아, 매 페이지마다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다.

첫째로, 글을 읽을 때는 작가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나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과 대화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문장과 단락을 꼼꼼히 살피고, 핵심 아이디어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이 아이디어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들이다.

둘째로, 비판적 사고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글에는 작가의 관점과 가치가 담겨 있으며,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읽는 태도는 글의 깊은 이해로 이끈다. 나는 작가의 주장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 근거를 평가하고, 다른 관점에서 글을 바라본다. 이 과정에서 나는 글 속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내 생각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본다.

셋째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다. 나는 글을 읽으며 얻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연결시킨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글에서 다루는 주제를 내 삶의 경험과 관련지어 보면서, 글의 내용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를 더 깊이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인내심과 집중력이다. 좋은 독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글을 서둘러 읽기보다는 시간을 들여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 때로는 어려운 내용을 만나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문맥을 이해하려는 인내심을 갖는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나를 더 나은 독자로 성장시키며, 글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모든 태도를 바탕으로, 나는 글을 읽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다. 글을 잘 읽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따라가는 행위가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다.

**내가 정리할 것**

# 11. 국어 어휘의 변화

## (2003학년도 9모, 33~36)

### 원래 글

#### 국어 어휘의 변화

음운이나 문법과는 달리 어휘에는 그 시대의 다양한 특징적 상황들이 반영된다. 따라서, 우리말의 어휘가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변화 양상까지도 읽을 수가 있다.

고대 국어의 어휘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이 시기의 우리말 어휘는 외래 요소에 의한 오염이 없이 순수한 고유어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 시대에 들어와 중국과의 교섭이 잦아지면서 수많은 한자어들이 들어와 우리말의 어휘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된 이중적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신라 경덕왕(景德王) 16년(서기 757년)에 원래 고유어였던 땅 이름, 사람 이름, 관직 이름 등이 대부분 한자어로 바뀌게 된 것도 한자어의 세력이 강해진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고유어가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중세 국어의 문헌들에는 '온[百]', '즈믄[千]', 'ㄹ름[江]'과 같이 현대 국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많은 고유어들이 발견된다. 이들은 뒤에 대부분이 한자어로 대체되었다.

또, 외래어의 도입도 끊임없이 이어져서 그 결과 고유어는 수적으로 점점 위축되어 왔다. '분[筆]', '먹[墨]' 등의 단어는 중국어를 직접 차용한 것이며, '부터[佛陀]', '미륵[彌勒]' 같은 불교 용어는 범어(梵語)가 한자어를 통해서 우리말에 들어온 것이다. 고려 말기에는 관직, 군사에 관한 어휘를 비롯하여, 말과 매, 그리고 음식에 관한 단어들이 몽골어에서 들어왔다. '가라말[黑馬]', '보라매[秋鷹]', '수라[御飯]' 등이 그 예이다.

갑오개혁으로 대표되는 개화기를 전후하여 우리말의 어휘에는 다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자를 사용하여 번역된 서구의 신문명어들이 대량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공기, 전기, 이발, 대학교, 권리, 석유, 철로, 병원,……' 등과 같은 단어들은 모두 이 시기에 들어온 것이다. 또, 일제 강점기에는 많은 일본어들이 우리말에 들어왔으나 광복 뒤 꾸준한 정리 작업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광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명과 직접 관계를 맺는 일이 잦아지면서 서구 외래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은 현대 국어 어휘의 커다란 특징이다.

단어의 의미도 역시 변화하였다. 어휘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의미 영역이 확장되기도 하고 반대로 축소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화하기도 한다.

의미가 적용되는 영역이 원래보다 확장된 예는 많이 있다. '영감(令監)'은 옛날에는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벼슬을 한

지체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남자 노인을 두루 가리키게 되었다. '다리[脚]'도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에서 무생물의 다리까지 의미 영역이 확장된 말이다.

### 나에게 설명하는 글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말이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왔는지에 대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단어들, 이것들은 사실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 단어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아보면,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심지어 정치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돼.

예를 들어, 옛날에는 우리 말이 정말 순수했어. 외래어라곤 없이 오직 우리 고유의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지. 하지만 시간이 흘러, 중국과 교류하면서 많은 한자어들이 우리 말에 섞이기 시작했어. 신라 시대에는 땅 이름이나 사람 이름 같은 게 대부분 한자로 바뀌었다니까, 상상이 가?

그리고, 중세 때는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우리 고유어들이 문헌에 많이 나와. 예를 들면, '온', '즈믄', 'ㄹ름' 같은 단어들이야. 이 단어들 대부분은 나중에 한자어로 대체되었지.

외래어가 들어오는 것도 계속되었어. 중국에서 온 '분', '먹' 같은 단어, 불교 용어로 들어온 '부터', '미륵'도 그렇고, 몽골어에서 온 '가라말', '보라매', '수라' 같은 단어들도 있어. 이런 외래어의 도입으로 고유어는 점점 줄어들었어.

그리고 개화기 때는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 서구의 새로운 개념이나 발명품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왔거든. '공기', '전기', '이발', '대학교' 같은 단어들이 그 예야.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어가 많이 들어왔지만, 광복 후에는 그중 많은 단어가 사라졌어.

이제는 서구 문화와 더 많이 접하면서 서구에서 온 새로운 단어들이 우리 말에 계속 추가되고 있어. 이런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단어의 의미도 시간에 따라 변해. 예를 들어 '영감'이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나이 많은 남자를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 되었어. '다리'도 처음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를 말했지만, 지금은 무생물의 다리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갖게 되었지.

이렇게 우리 말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역사와 문화, 심지어 사회 변화까지도 읽어낼 수 있어. 정말 흥미롭지 않아?

**평리하는 태도**

을 잘 읽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방금 우리말의 변화에 대해 탐구했던 것처럼, 깊이 있게 생각하고 탐구하는 태도가 필요해. 내가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갖출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정리해볼게.

**호기심 갖기:** 우선, 읽고 있는 글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봐. 글이 담고 있는 이야기, 배경,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까지도 궁금해하면서 읽어. 마치 탐정처럼 말이야. 글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면, 글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연결 짓기:** 읽고 있는 내용이 우리 주변의 세계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 예를 들어, 우리말의 변화를 읽으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혹은 역사적 사건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탐색해보는 거야.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모든 글에는 작가의 관점이 담겨 있어. 그래서 읽으면서, 작가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다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고민해봐. 이런 과정을 통해, 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어.

**질문하기:**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질문을 해봐. 질문을 하다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탐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요약과 정리하기:** 읽은 내용을 자신만의 말로 요약하고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하면 글의 핵심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어. 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적어보는 것도 좋아. 이 과정에서 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비판적 사고력도 키울 수 있어.

**재미 찾기:** 마지막으로, 읽기를 즐겨봐. 글을 읽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

이런 태도들을 갖추고 글을 읽으면, 단순히 글자를 따라가는 것 이상의 깊은 이해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 우리말의 변화에 대해 탐구했던 것처럼, 다양한 글들 속에서도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정리할 것**

## 12. 대화의 원리

### / 대화에서 사용되는 언어

### (2004학년도 6모, 48~51)

#### 원래 글

(가)

일찍이 그라이스(Grice)는 '협력 원리'라는 말로 대화에 내재하는 원리를 설명하고자 했다. 사람들이 대화의 방향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는 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기 때문에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라이스가 말하는 대화의 협력 원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위 규칙인 네 가지 격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믿는 것, 혹은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質)의 격률>, '진행되는 대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는 <양(量)의 격률>, '관련성을 지니는 말을 하라'는 <관련성의 격률>, 그리고 '모호성이나 중의성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 등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일상 대화에서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손님을 초대하여 잘 차린 음식상 앞에서)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 발화는 한국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하는 인사 표현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표현은 협력 원리를 준수한 발화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차린 것이 많다는 사실 그대로의 정보 전달에 충실하기보다는 사실과는 차이가 있더라도 청자에 대한 관계 유지를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공손함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하여 의도적으로 협력 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협력 원리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화의 원리를 '공손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협력 원리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호 관계의 증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협력 원리보다 공손 원리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나)

인간은 사교적인 존재임을 자처한다.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살아야 하고, 때로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데, 언어 또한 그 주요 수단의 하나로 이용된다. 이러한 언어 활동에서는 언어 형식의 관습적인 의미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인사 중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등의 안부를 묻는 말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 어른께 문안을 드리거나, 집 밖에서 친지를 만났을 때 피차에 건강하고 유쾌한 모습을 확인하고서도 이와 같은 의문 형식의 인사를 한다. 이러한 발화 행위가 상황에 따라 의사와 환자의 사이에서처럼 애초부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 것은 물론이나, 일상적인 인사의 경우에는 다만 친교를 확보하거나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많다.

이와 같은 종류의 언어는 대체로 피차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문제를 화제로 선택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언어는 서먹서먹한 관계를 개선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합의나 승낙을 얻어내기 위한 교섭에서, 이처럼 의견의 일치를 보기 쉬운 화제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본론에 접근하면, 단도직입으로 난제를 꺼내는 것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 나에게 설명하는 글

오늘 나는 사람들이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그러다가 기억이 났어. 과거에 한 학자가 '협력 원리'라는 걸 제안했었다는 걸. 이걸 대화가 왜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는지를 설명해주는 아이디어야. 사실 나도 대화할 때 상대방과 잘 통하려고 노력하지. 이 원리는 네 가지 간단한 규칙으로 이뤄져 있어. 첫째, 사실이 아니거나 확실한 근거가 없는 건 말하지 않기. 둘째, 대화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정보만 제공하기. 셋째, 대화에 맞는, 관련 있는 이야기만 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호하거나 이중적인 말은 피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나는 이 규칙들이 우리 일상 대화 속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지 실감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가끔 이 원리를 일부러 어기기도 하더라고. 예를 들어, 손님을 집에 초대했을 때 "많이 준비한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하는 거야. 분명 많이 준비했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걸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야. 이렇게 협력 원리 대신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공손 원리'라는 거야. 사람들 사이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지.

나도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어.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서로의 유대를 확인하고 강화하려고 해.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에 만나서 "밤새 잘 주무셨어요?"라고 묻는 것도 그 중 하나야. 이걸 진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잤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저 친밀감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이런 종류의 대화는 서로가 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화제를 다루면서, 관계를 좀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상황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 있어. 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어.

**평리되는 태도**

글을 잘 읽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생각해봤어. 내가 방금 읽은 내용에서 배운 것처럼, 대화에는 '협력 원리'가 있듯이, 글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어. 내 생각을 정리해볼게.

열린 마음을 가지기: 우선,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에 열려 있어야 해. 글을 읽을 때, 작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해야 해. 그러니까, 미리 편견을 가지고 글을 읽기 시작하지 말고, 작가의 말에 귀 기울이자고.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기: 글을 읽으면서 '왜', '어떻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 이런 질문들이 글의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거야. 질문을 통해 글의 깊이와 너비를 탐색할 수 있어.

주제와 메시지에 집중하기: 글을 읽을 때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메시지에 집중해야 해. 각 단락이 전체적인 메시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생각해보고, 주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해.

비판적 사고 연습하기: 글을 읽으면서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해봐. 작가의 주장이 타당한지, 어떤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 등을 생각하며 읽으면, 더 깊은 이해와 평가가 가능해져.

연결 지어 생각하기: 읽고 있는 내용을 자신의 경험이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 다른 작품들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는 거야. 이런 연결 고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억에도 오래 남게 할 수 있어.

주의 깊게 읽기와 반복하기: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읽는 것이 중요해.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해두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자.

감정 이입하기: 글에 담긴 감정이나 분위기를 느끼려고 노력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시도하면, 글의 메시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어.

글을 잘 읽는 것은 단순히 단어와 문장을 따라가는 것 이상이야. 작가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과 같아. 이런 태도를 갖추고 글을 읽어간다면, 글 속에 숨겨진 뜻을 더 잘 파악하고, 읽기의 즐거움을 더욱 느낄 수 있을 거야.

**내가 평리할 것**

# 13. 규범을 지키는 언어생활 / 표준어 (2004학년도 9모, 19~23)

## 원래 글

(가)

우리말에서 신경을 써서 가꾸고 다듬어야 할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규범을 지키는 언어생활이다.

우리는 우리말 사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어 규정, 맞춤법 규정, 표준 발음 규정, 외래어 표기법 같은 국가적 차원의 규범을 만들어 놓고 언어생활에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나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몇 번 머무를 기회가 있었는데, 철자를 잘못 적는 일은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다. 이에 반해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거리에 나가 거닐면서 각종 상점의 간판, 광고, 표지 등을 잠깐만 살펴보다라도,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을 한두 건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이다.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표준어 규정이나 표준 발음에 어긋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거나, 심지어 영어 철자법에는 자신이 있는데 한글 맞춤법은 어려워져 영 자신이 없다고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 이야기하는 지식인을 본 적도 있다. 사실, 영어의 철자는 너무나도 불규칙해서 송두리째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비하면, 우리말의 맞춤법은 영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쉽다. 그런데도 우리말의 맞춤법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말을 소홀하게 생각해 온 데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나)

현재 한국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고 있다. 규정상으로 서울말이 표준어로 인정된 것은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과 같이 선포한 때다. 이것이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처럼 좀 더 정밀하게 규정되었고, 1988년 '표준어 규정'에서는 다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와 같이 얼마간 표현을 바꾸었다.

위의 세 규정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다만 1933년과 1988년의 규정에서는 '대체로'와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으로 서울말이 그대로 전부, 또는 서울말만 표준어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중류사회', '교양 있는 사람들'이란 조건은 사회 방언을 의식하여 궁중과 같은 특수 사회나 하층 계급의 말은 서울말일지라도 표준어의 대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을 단 것이다.

그런데 표준어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을 하지 않았어도

한국어의 표준어가 서울말이 아닌, 더 정확히 교양 있는 사람들의 서울말이 아닌 다른 지역(및 다른 계층)의 말이 표준어가 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서울은 600년 동안이나 한국의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였다. 조선조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는 개성이 475년 동안 고려의 수도였는데, 개성과 서울의 거리는 불과 73km로 두 도시는 언어적으로 동일한 방언권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서울말이 한국어의 표준어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은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었을 것이다.

## 나에게 설명하는 글

(가)

나는 우리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가꿔야 하는지 생각해 보곤 한다. 특히, 나는 우리말을 쓸 때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생각해. 바로 우리말의 규범, 즉 표준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맞춤법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야. 나는 몇 번이나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맞춤법을 틀리게 쓰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어때? 길을 걷다 보면 상점 간판이나 광고에서 틀린 맞춤법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 심지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표준어를 잘못 쓰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고, 영어는 잘하는데 한글 맞춤법은 헛갈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사실 우리말 맞춤법은 영어에 비하면 훨씬 쉬운 편이야.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말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우리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나)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고 있어. 이 건 1912년부터 시작된 건데, 그때는 서울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처음으로 말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규칙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여전히 서울말이 중심이야. 가끔 '서울말만이 표준어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서울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야. 서울은 600년 동안 중요한 도시였고, 그 전에는 개성이 중요한 도시였어. 서울과 개성은 언어적으로도 비슷해서, 서울말이 표준어가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서울말이 표준어로 자리 잡게 된 건, 오랜 역사와 전통 때문이야.

**평리되는 태도**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태도가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태도들을 몇 가지 정리해볼 수 있어. 나는 이제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보고 싶어.

첫 번째로,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글이 사용하는 언어의 규범과 규칙을 이해하고, 왜 그렇게 사용되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 예를 들어, 맞춤법이나 문법 같은 것들이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이를 제대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역사와 배경에 대한 이해야.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이 사용하는 언어나 표현이 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역사나 그 글이 쓰인 배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 예를 들어, 서울말이 표준어로 쓰이는 배경을 알면, 다양한 지역의 말이나 표현이 왜 그 글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어.

세 번째는,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는 거야. 글을 읽을 때 그냥 글의 내용을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이 주장이나 정보가 객관적이고 타당한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해. 이를 통해 우리는 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어.

네 번째로,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해. 다양한 의견이나 표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특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해.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연습이 필요해. 글을 잘 읽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으면서, 그 글에서 사용된 언어와 표현, 그리고 그 글이 전하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점차 발전해나가는 거야.

이렇게 글을 잘 읽기 위한 태도들을 마음속에 담고, 다양한 글을 접하면서 꾸준히 연습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글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평리할 것**

# 14. 그림 책의 원리

## (2004학년도 수능, 39~42)

### 원래 글

그림책의 그림은 순수 회화와 구별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한다.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은 ‘illustrate’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한다’라는 뜻이다. 그림책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림책이 전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준다. 오랫동안 그림책은 글자를 터득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어른이 읽어 주는 책이었고, 일러스트레이션은 책을 장식하는 요소로 사용되어 왔다. 도구였던 일러스트레이션이 오늘날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림책이 독자적인 장르로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이다. 오늘날 그림책 속에 담긴 일러스트레이션은 점점 회화적인 요소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설명한다는 목적 때문에 예술적 의의를 인정받지 못했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좋은 일러스트레이션일수록 이야기가 풍부하다. 한 권의 그림책 속에 어우러지는 일러스트레이션은 작품을 입체적으로 만든다.

좋은 그림책이란 어떤 것인가? 회화의 공간성과 영화의 시간성이 간결한 언어와 입체적으로 만나서 풍부한 이미지를 주는 그림책이다. 글 속에 생략되어 있는 묘사와 서술을 세심하게 이행하고 있는 그림을 엮은 책이다. 그려져 있는 것과 그려져 있지 않은 것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다리는 그림책 속에는 글과 그림의 조합 방식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숨어 있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느다란 선으로 표현하여 어딘지 소극적이고 더듬거릴 것 같아 보이는 그림, 유창한 드로잉으로 힘 있게 날아오를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림, 사인펜으로 북북 그어 놓은 선들 때문에 꼭 망친 것 같아서 인물의 절망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그림, 하얀 바탕에 묵탄을 문질러서 아련한 느낌을 주는 눈 쌓인 그림들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재미가 있다. 그림 자체가 보는 사람에게 전하는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림의 배경들이 거의 흰색이거나 흰색에 옅은 색이 들어 있고, 물체를 표현하는 선들이 진하거나 날렵하면서도 많이 끊겨 있는 그림책도 있다. 그 끊겨진 선들마저 지워지는 곳에 빛이 있다. 그 빛은 그림 하나하나를 오로라처럼 둘러싸고 살아 있게 만든다. 이렇게 말이 줄어들어 생긴 빈자리에 상상력과 사유가 깃든다. 이는 건축 설계 시 형태, 장식, 공간과 같은 요소들 가운데 공간을 다양하게 변용하는 데에서도 볼 수 있다.

좋은 그림책은 완성되어 있는 글에 그림을 그려 넣은 책이 아니라 글과 그림이 함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책이다. 존재하는 물감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색이 만들어지고, 선과 선, 색과 색, 혹은 선과 색이 만나면 화폭에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영국의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처럼 “그림을 그리는 동안 문득 그림 그 자체와는 상관없이 바깥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저러한 형태들과 방향들이 어찌어찌하여 그냥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책을 본다는 것은 글로 쓰여진 개념이나 대상을 넘어 미지의 영역과 서로 맞닿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다.

### 나에게 설명하는 글

나는 언제부터인가 그림책을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그림들이 전하는 깊은 이야기와 감정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림책의 그림들, 우리가 보통 ‘일러스트레이션’이라 부르는 그것들은,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야.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예를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림책 속의 그림들은 이야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할 수 있지.

어렸을 때, 글자를 모르는 나에게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주곤 했어. 그림들은 단지 책을 예쁘게 꾸미는 장식 같은 역할을 했었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이러한 일러스트레이션이 단순히 장식을 넘어서 그림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어.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림책 속의 그림들이 단지 이야기를 돕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을 만큼 회화적인 요소가 강해지고 있다고 해.

그렇다면, 정말 좋은 그림책이란 무엇일까? 내 생각에는, 그것은 글과 그림이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보는 이로 하여금 더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이야. 그림책 속의 선들은 때로는 가늘고 연속적이어서 이야기를 부드럽게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강렬하고 끊어져서 감정의 깊이를 더해주시기도 해. 하얀 바탕 위에 묵탄으로 그려진 눈 쌓인 풍경처럼, 보는 이로 하여금 아련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그림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재미있고 감동적인 것이지.

나는 그림책을 볼 때마다, 그림 속에 숨겨진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색과 형태들에 놀라곤 해. 그것은 마치 건축에서 공간을 창조하는 것처럼, 글과 그림 사이의 빈 공간에 상상력을 풍부하게 채워 넣는 일이야.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했듯,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형태와 방향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림책을 보는 것도 글로 쓰여진 것을 넘어서서 미지의 영역과 대화를 나누는 경험이야.

좋은 그림책은 그냥 글에 그림을 첨가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글과 그림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작품이지. 그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색이 탄생하고, 선과 색이 만나면서 화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그림책을 통해 나는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들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상상의 세계로 초대받는 것 같아.

**평리되는 태도**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태도가 필요해. 우선, 나는 글을 읽을 때 마음을 열고,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글 속에 담긴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그림이나 다른 요소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해. 이렇게 하면, 글을 통해 더 깊은 의미와 감정을 발견할 수 있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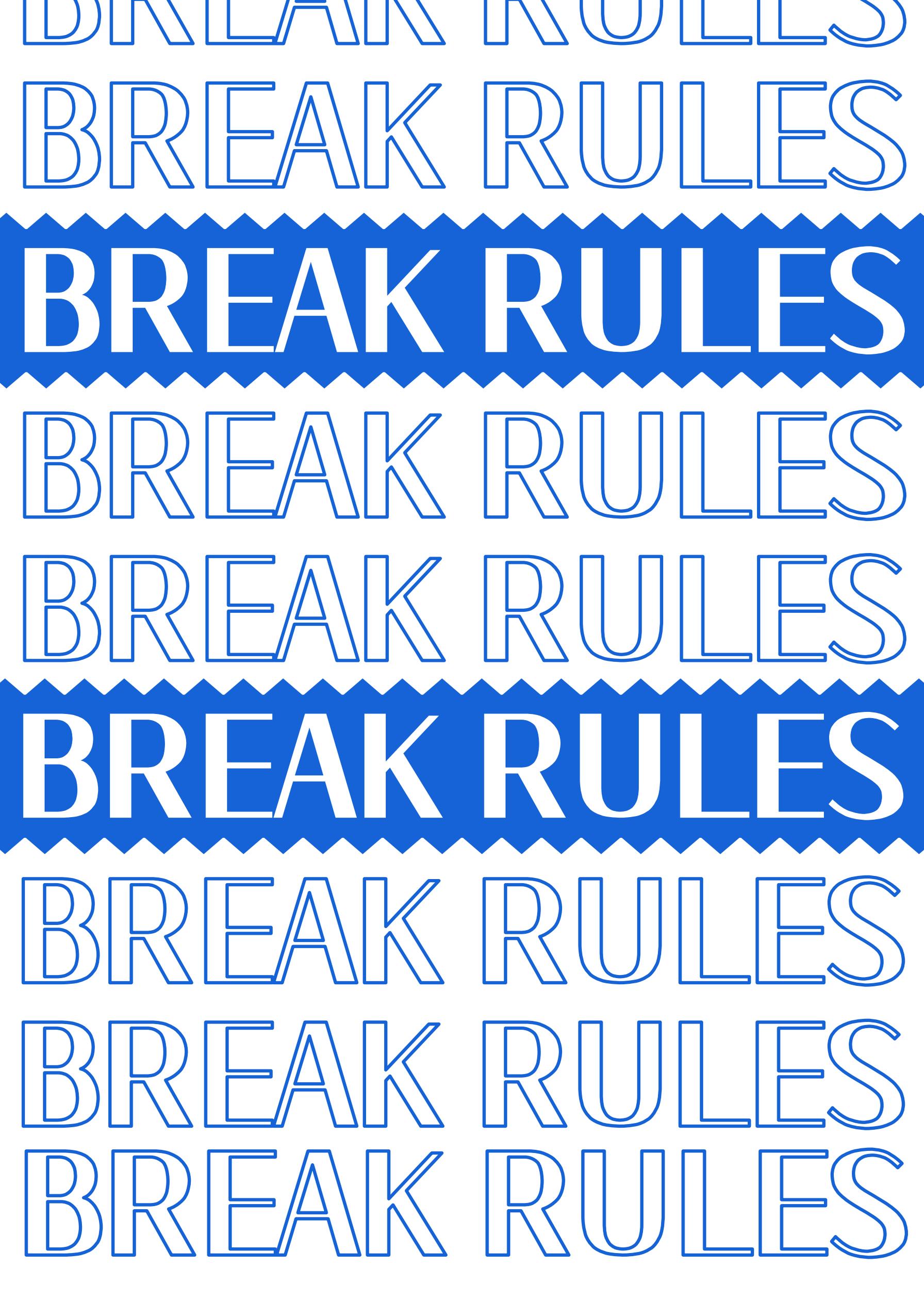
두 번째로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해. 글과 그림 사이의 관계, 글 속에 숨겨진 빛과 그림자, 또는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색과 형태들을 상상하면서 읽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어. 글을 읽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여행이 되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 그림책을 예로 들면, 좋은 그림책은 독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길 기다리는데, 글과 그림의 조합 방식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묘사와 서술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 글과 그림 사이의 빈 공간에 내 상상력을 채워 넣으면서 읽는 경험이 풍부해져.

마지막으로, 글을 읽을 때는 비판적 사고를 발휘하는 것도 중요해. 글 속에 제시된 아이디어나 주장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글의 깊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해석할 수 있게 돼.

결국,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은 이러한 태도들을 바탕으로 글 속의 세계에 깊이 몰입하고, 작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 글을 읽는 것이 단지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나 자신과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

**내가 평리할 것**



BREAK RULES

BREAK RULES